

# 광주시 공무원, 자녀 입영일에 특별 휴가 준다

## 눈길 끄는 광주시의회 조례

### 모범 환경미화원에 선진지 견학

광주시의회는 20일 제243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결의안 2건, 규칙안과 동의안 각각 1건씩 등 모두 21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린데다,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에 1일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오섭 의원) 등 6건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모범적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 선진지 견학 등 포상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민중 의원 등)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민중 의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주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안'(김동찬 의원 등) 등 7건을 심사했다.

사회적 일자리 조례안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올 첫 전남 입학 중 크루즈 '중화태산호'

인 '보하이크루즈'가 소유한 2만5000t급 선박으로, 지난 17일 청다오를 출발해 제주를 경유, 이날 여수항에 기항했다.

올들어 처음으로 전남지역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선인 '중화태산호'의 중국 관광객 1000여명이 20일 오전 여수항에 입항해 취타대의 환영공연을 즐기고 있다. 중화태산호는 최초의 중국자본 크루즈선사

〈전남도 제공〉

는 매년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선 내년 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명을 정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광주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밖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선 '문화도시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광주시 의원 신분증 규칙'과 '시의회 정원심사 규

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일부 현안사업들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회기를 연 뒤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오늘 나주시 문화예술 협력 '상생' 선언

광주시와 전남도가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 상생'을 선언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나주시 산포면에서 광주·전남 문화주간 선포식을 연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주시립교향악단, 전남도립국악단, 입지형 현대무용단, 피플코리아 등이 공연한다.

선언문은 '광주와 전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 뿌리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문화와 예술로 상생 협력해 양 지역의 문화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시·도 문화예술인은 서로 연대와 협력으로 남도 문화예술의 성공적인 상생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문화 예술인·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 ▲행사·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계 없는 협력 ▲'남도 방문의 해'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을 약속하는 총 5개 항목이 담겼다.

이번 선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 사업과 관광 분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장현 광주시장 내일 중 칭화대 강연

### 청년 비전 역할 주제

### 국내 인사로는 4번째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국 명문 칭화대학교에서 국내 인사로는 4번째로 강연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오는 22일 오후 칭화대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한다. 국내 인사로는 박근혜 대통령·정몽준 전 의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4번째이며, 세계적으로는 19번째다.

광주시에 추진하는 '중국과 친해지기'(차이나프렌들리)에 대한 노력을 대학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윤 시장을 초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칭화대 해외명사 초청 강연은 주요 정상급 인사나 500대 기업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1시간가량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중 우호를 위한 칭화포럼 개최, 청년 인문교류 프로그램, 공무원 연수, 대학생 상호방문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21일 출국하는 윤 시장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광주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광주 베이징 문화산업협력센터 설립 의향서와 관광협약서도 교환할 방침이다.

앞서 윤 시장은 20일 광주시청을 찾은 중국 만영그룹 스카이징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만영그룹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석가장(石家庄)에서 부동산, 문화산업, 여행, 요식업, 금융업, 생태농업 등 6개 주요 분야 사업을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장현-박원순 시장 리더십 비교 내일 민관합동 학술대회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비정부기구(NGO) 출신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민관합동 특별학술대회가 22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NGO학회, 광주시, 광주NGO센터,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단체 출신인 두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행정 및 정치경험 없이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펼쳐온 윤 시장과 박 시장을 비교분석한다.

손 교수는 '후원자형' 윤 시장과 '선봉자형' 박 시장을 대비하며 소통과 현장을 강조하는 두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강조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친환경농식품 대규모 경영체 육성 시급"

### 광주전남연구원 'FTA와 전남농업 발전' 세미나

한·중 FTA 등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시장 개방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전남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농식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판매·수출하는 대규모 경영체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친환경농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제 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전남연구원이 개최한 'FTA와 전남농업 상생발전 전략' 국제포럼에서 조창완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전남 친환경농식품 수출확대 방안'발제문을 통해 전남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상품 개발, 친환경농식품 유통경로 개척, 시장 세분화 및 목표시장 설정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생산자와의 계약재배는 물론 생산·유통·수출을 맡을 생산자조직·생산기지·

수출기업을 갖춘 친환경 농식품 수출 전용 생산기지 및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유기농식품(COFCO) 인증비 지원, 첨단과학기술(ICT)을 활용한 소포장 위주 친환경농식품 포장재 개발과 함께 유통경로 개척을 위해서는 중국 대형 농식품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인터넷쇼핑몰 및 SNS 등 신유통채널을 활용한 전남 친환경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마케팅, 지역·권역별 마케팅 세분화, 세대별 목표시장 설정 등 틈새시장 공략, 구매력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내 중소형 도시 공략 강화 등도 강조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세계 농업의 변화를 직시하고 전남 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한·중·일·베트남 농식품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015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열렸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감·사·행」 실천캠페인

질문이 낫고 싶을 때  
행복한 학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작은 다짐  
우리 모두 실천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이  
나와 친구의 가슴을 멎게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듭니다.

건강한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행」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친구야  
사랑해!